

중국어 지시 화행 속 감사 화행의 담화 전략 연구*

김 보 라**

〈目 次〉

I. 서론	II. 본론
1. 연구 배경	1. 감사 화행과 감사형 보조 화행
2. 선행 연구	2. 언어 환경과 감사형 보조 화행
3. 연구 및 자료 수집 범위	III.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

지시 화행(Speech Acts of Directives)은 화자가 지시 의도를 가지고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하는 언어 행위로 ‘명령, 요청, 부탁, 제안, 금지, 충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시 화행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언어 행위지만, 상대 행동에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면을 위협하고 부담을 가하는 행위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지시 화행 연구는 체면 위협 등 부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손 표현, 간접 표현 등 화용 전략 방면에서 연구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7047424).

**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가 많이 진행되었다.

지시 화행의 전략과 관련하여 Blum-Kulka(1989)는 지시 화행의 하위분류인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화행의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요청 화행은 일반적으로 시작어(Address Term), 주 화행(Head Act), 보조 화행(Adjuncts to Head Act) 세 가지 장치로 구성이 된다. ‘주 화행’은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지시 화행에서 꼭 필요한 핵심 화행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시 화행 전략 연구는 주 화행 부분의 ‘직접’과 ‘간접’ 형태의 공손 전략, 예의 표지 등 방면에서 진행되었다(김현철·김민영, 2009; 김정은, 2010; 윤상희, 2019). 하지만 주 화행을 제외한 시작어와 보조 화행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한중 요청 화행의 비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사용 전략 등 방면에서 주로 시작어와 보조 화행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어보다는 한국어 요청 화행 연구에서 더 자주 언급되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주 화행의 올바른 발화도 중요하지만, 아래 예(1)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작어와 보조 화행을 통해 주 화행이 담지 못하는 감정, 지시의 당위성, 기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1) a. 親愛的, 這件衣服一定適合你, 要不要進去試試?
 자기야, 이 옷 자기한테 분명 잘 어울리겠다, 들어가서 입어 볼래?
 시작어 보조 화행 주 화행
- b. 別老盯著人家看, 這樣不禮貌.
 계속 사람 뚫어지게 보지 마, 그렇게 하면 예의 없는 거야.
 주 화행 보조 화행

주 화행을 제외한 시작어와 보조 화행에 관한 명칭과 분류는 통일 되어 있지 않다. 세부 분류는 연구에 따라 적게는 셋, 많게는 열 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¹⁾. 보조 화행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 유형

유형	예시
이유제시형	我現在沒心情，晚點說吧。 지금 기분 좋지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탐구형	你現在有時間沒，幫我做個問卷調查。 너 지금 시간 있으면, 설문 조사 하나만 해줘.
불평형	你安靜點行不行啊，你影響我看書了！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나 책 보는 데 방해돼!
후속조치형	我一周給你一個麵包，加入我們樂隊。 내가 한 주에 빵 하나씩 줄게, 우리 밴드에 가입해.
내용보충형	我要一罐牛奶，熱的。 우유 하나 주세요, 따뜻한 거요.
감사형	借你的筆用一下好不好啊，先謝謝你啊！ 네 펜 좀 잠시 사용해도 돼? 일단 고마워!

본 연구는 위의 보조 화행 중 감사형 보조 화행을 중심으로 지시 화행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려고 하는데 이는 감사형 보조 화행이 기타 보조 화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장소나 서비스 업무 상황에서 종종 “請出示身份證，謝謝。”，“麻煩停一下，謝謝。” 등

- 1) 張紹傑·王曉彤(1997)은 중국어의 보조 행위어를 허락 언기(做出許諾), 신임 표시(表示信任), 감사와 관심 표시(表示感謝和關心), 원인 설명하기(說明原因)로 나누었다. 장우양(2018)은 ‘보조 화행’을 ‘외부 보조 장치’라 칭하고 기능별로 이유 설명, 부담 줄이기, 감사와 사과, 직접적 호소, 보상하기, 기타 보조 장치 6가지로 분류했다. 임나(2019)는 수식어와 보조 화행을 합하여 ‘주변부’라 칭하고 주관화 표현, 이유 표현, 준비 표현 총 3가지로 분류하고 이것이 요청 화행을 공손하게 발화하기 위한 전략이라 하였다. 소남(2019)은 시작어를 보조 화행에 포함하여 호칭형, 인사형, 호출형, 탐구형, 이유형, 부담형, 고려형, 사과형, 강조형, 보답형, 불평형, 칭찬형, 약속형, 설명형, 신분형, 감사형 총 16가지로 분류했다. 張紹傑·王曉彤의 연구는 이후 중국어 요청 화행의 보조 화행 연구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상 세 개의 선행 연구 역시 張&王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을 분류하였다.

의 표현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다. 본래 감사 화행은 전통적으로 청자의 과거 행위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기능을 하는데, 위 상황에서는 아직 청자의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화될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첫째로 중국어 지시 화행에 바로 후행하는 감사 화행²⁾의 기존 전제조건과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화용론적 관점으로 기존의 감사 화행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고, 감사형 보조 화행이 담화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자 한다. 둘째로 감사형 보조 화행의 구체적인 언어 환경(語境-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이익과 손해, 발화 수반력 유형 등)에 따른 전략적 활용에 대해 고찰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Searle(1969)은 Austin(1962)의 연구를 바탕으로 화행 이론을 다듬고 발전시켰다. Searle은 화행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지시(directives) 화행과 감사(expressives)³⁾ 화행이 본문의 주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Searle은 여러 유형의 화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중 명제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과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이 있는데, 명제 조건은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조건이며, 예비 조건은 화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발화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을 말한다. 지시 화행의 명제와 예비 조건은 ‘화자

- 2) 이하 Searle(1969)의 언어 행위 이론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존의 감사 표현은 ‘감사 화행’으로 표기하고, 지시 화행에 후행하는 감사 표현은 ‘감사형 보조 화행’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또한 본고 제목 속 ‘감사 화행’은 ‘지시 화행’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언어 행위의 하위분류로서의 감사 화행이 아닌 감사의 형식을 가지고 지시 화행의 보조 기능을 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임을 밝힌다.
- 3) ‘expressives’는 ‘표현 화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화자의 심리 또는 태도를 표현하는 영역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감사 화행을 표현 화행의 하위분류로 본다. 본문에서는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 화행’ 대신 ‘감사 화행’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가 지시하는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행위'이며 '청자가 지시 행위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함'이다. 감사 화행의 명제 조건은 '청자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의 행위'이며 '청자가 행한 과거의 행위는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 제시하였다. 강성영(2014)은 감사 표현의 특성을 Kerbrat-Orecchioni의 예절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화자가 받은 호의적 행위에 대한 고마움 표시 행위로서 적극적 예절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감사 표현은 '적극적 예절의 성격을 띤 실질적 감사'라고 불렀으며, 표현에 진심이 실리기 때문에 부사를 활용하여 표현을 극대화할 수는 있으나, 최소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강성영(2014)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예로 했지만, '太謝謝了'와 '非常感謝'는 가능하지만 '比較感謝'와 '稍微謝謝'는 어색한 표현임을 중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과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정 표현의 기능을 하는 감사 표현이 청자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지시 화행에 후행하여 발화된 것은, 감사 화행의 명제 조건에 위반되며, 지시 화행과 감사 화행 간 시간의 축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간 축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감사 화행이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기존의 기능과 의미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상기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감사 표현의 소극적 예절의 유형이 있음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감사 표현의 소극적 예절은 '원만한 상호관계와 상대의 체면을 유지하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적 의미가 작용하는 감사 유형으로 의례적 감사'라고 불렀다. 이는 실제 과거의 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닌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관습적인 감사라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나, 지시 화행과의 결합에서도 또 다른 기능의 존재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 연구는 현재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언어를 중국어로 한정한다면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앞서 언급한 중국어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 연구에서 감사 화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張紹傑·王曉彤(1997)은 보조 화행에 관하여 언급하긴 하였으나 분류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뿐 자세한 분석은 없었으며, 보조 화행은 어떤 유형이든지 ‘요청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장우양(2018)은 요청 화행에서의 보조 장치가 주 화행을 도와주는 동시에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면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수단이라 언급했으며, 감사형 보조 화행은 보조 화행의 세부 분류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임나(2019)는 감사형 보조 화행에 대해 요청 발화 후 은혜를 베푸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청자의 체면 손상과 부담을 완화하며 공손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소남(2019)은 감사형 보조 화행이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청자에게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요청 화행에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선행 발화가 아닌 수행 발화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화자가 앞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청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외에도 ‘感謝’가 ‘謝謝’에 비해 공손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중국어 외의 언어 연구 및 지시 화행 이외의 화행과 함께 사용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에 관한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황정혜(2018)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거절 화행 연구에서 각각 두 화행의 보조 화행으로 쓰인 감사 표현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시 화행의 감사형 보조 화행은 ‘청자가 요구를 수락할 경우를 가정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전략’이라 하였고, 거절 화행의 감사형 보조 화행은 ‘일종의 상대방 체면을 세우는 전략이며, 상대방의 요구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거절 시 생길 수 있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이라 하였다. 주결(2022)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금지 화행의 감사형 보조 화행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감사형 보조 화행은 낮은 사람인 청자에게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상대방에게 미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거리가 소원하거나 상대적 힘이 화자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쓰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 언급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감사형 보조 화행만을 깊이 있게

다른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다양한 보조 화행을 다른 비교적 최신의 연구 결과를 보아도 감사형 보조 화행에 관한 관점은 여전히 Searle(1969)이 제시한 감사 화행의 기본 전제조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시 화행 속의 감사 화행이 의사소통의 성공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 및 자료 수집 범위

본 연구는 중국어 지시 화행에 후행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시 화행과 감사 화행은 각각의 명제 조건에 따르면 발화의 목적이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독 발화된 감사 화행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며 반드시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으로 사용된 감사 표현만 연구 범위에 포함한다. 이 외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다른 언어 환경에서 다른 전략적 특징을 나타낸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문자와 음성,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발화된 지시 화행 속 감사 화행을 언어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구어와 문어, 다양한 교체 관계, 지시 화행의 발화 수반력 등의 차이에 따라 감사형 보조 화행이 지시 화행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전략적 특징을 가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지시 화행 담화에서 감사형 보조 화행의 역할과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장의 단편적인 구조와 의미만 보아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기능을 연구하기 어렵다. 감사형 보조 화행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화자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그만큼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시 화행+감사형 보조 화행’ 구조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에 사용되는 언어자료도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발화된 것을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언어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표준 중국어를 사용한 중국 드라마에서 언어자료를 수집한

다. 드라마는 실제 담화 상황과 비슷하고 다양한 교제 환경이 존재한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음성언어로 발화된 연구 자료를 얻기 쉽다. 이 외에 담화 주체자, 장소, 심리, 문맥 등 담화 당시의 객관적인 언어 환경을 삼인칭 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의 드라마 안에서는 환경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고 대사에 작가 개인의 언어습관이 반영될 수 있어 여러 개의 다양한 드라마⁴⁾에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둘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드라마 대사는 등장인물이 다르더라도 작가의 영향과 사회적 제약 때문에 보다 다양한 표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안에서 언어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 설문 조사⁵⁾는 20여 명의 중국인에게 지시 화행을 발화하기 위한 16가지의 다양한 언어 환경을 제시한 후 실제 본인의 언어습관에 따라 응답하게 한 것인데, 설문 결과물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화행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물을 통해 언어 환경의 구체적인 제약과 조건이 감사형 보조 화행의 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문자언어로 발화된 언어자료 수집을 위해 북경 대학의 CCL과 북경 어언 대학의 BCC 말뭉치, 그 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다. CCL과 BCC 말뭉치에서 중국 소설과 중국 블로그 웨이보(微博) 등 다양한 문자

4) 중국 본토에서 방영된 드라마에서 선정하였다. 참고한 드라마는 ‘一又二分之一的夏天’, ‘轉身說愛你’, ‘三十而已’, ‘致我們暖暖的小時光’, ‘致我們的單純的小美好’, ‘親愛的熱愛的’, ‘偷偷藏不住’, ‘歡樂頌3’이다.

5) 본 설문 조사는 지시의 난도, 지시 대상의 연령(손윗사람/동년배/손아랫사람), 감정적 거리, 상황의 긴급 정도, 친밀도 등에 따라 같은 지시 의도가 어떻게 다르게 전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을 통해 총 1195개의 지시 화행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감사 표현을 함께 사용한 지시 화행을 선별하여 본고의 언어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 예시-‘당신은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과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30도가 넘는 한여름 햇빛 아래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이때, 당신은 각각 다른 연령의 상대방을 어떻게 재촉할 것인가? / 상대방 조건 : 5살 많은 선배, 동갑 친구, 5살 어린 후배)

자료를 표적 수집할 수 있으며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의 주 사용층인 중국인들의 실제 언어습관이 반영된 언어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자료와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의 언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본론

1. 감사 화행과 감사형 보조 화행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사 화행은 ‘과거에 실행한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대한 답례’이다. 감사 화행의 발화 영향 효과(perlocutionary effect)⁶⁾는 상대방(감사 화행의 청자)이 이미 과거에 베푼 행동에 고마움을 표함으로써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존중의 기능과 서로의 감정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 (2) a. 你的每一個幫助，都讓我心生感激，謝謝你。
당신의 모든 도움에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b. 謝謝你的關心和支持，讓我感到不孤獨。
당신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 c. 我非常感謝你為我所做的一切。
당신이 저를 위해 한 모든 일에 매우 감사합니다.
- d. 非常感謝你的幫助。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예(2)는 전형적인 감사 화행으로, 모두 청자가 현재 발화의 이전에 행한

6) 발화 영향 효과(perlocutionary effect)는 발화 수반 행위를 통해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리하자면 발화하여 발생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Yan Huang(이해운 역),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129쪽 참고.

어떤 행위에 대하여 발화되었다. ‘謝謝’와 ‘感謝’ 외에도 담화 환경에 따라 ‘感激’와 ‘謝意’ 등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담화의 마지막에 ‘謝謝’, ‘非常感謝’, ‘太感謝了’ 등을 사용하여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謝謝/感謝+NP(~한 것에 감사하다)’라는 형태로 화두에서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감사 화행이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으로 사용될 때 기존의 감사 화행의 발화 영향 효과(perlocutionary effect)에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화용적 기능을 얻고, 지시 화행의 발화 및 화자의 지시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지시 화행에 후행 되는 감사 화행은 청자가 지시 행위를 곧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발화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감사 화행의 전제와는 차이를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감사형 보조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요청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베푼 은혜에 미리 감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함’의 기능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의 선행 조건

첫째, 지시 이행의 수혜자가 화자이다;

둘째, 화자가 청자에 대해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

셋째, 지시의 세부 발화 수반 결과는 강제성이 높은 명령이 아니다.

이하 예(4)의 화자는 모두 지시 이행의 수혜자이며, 청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없고 강제성이 높은 명령이 아닌 요청을 하고 있다. 이 언어 환경에서 사용한 감사형 보조 화행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곧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및 예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a. 來分蒜黃炒蛋, 謝謝。

마늘잎 달걀 볶음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b. 有沒有學步鞋? 幫忙找一下, 謝謝。

걸음마 신발 있나요?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c. 給我一杯無限續杯的酒, 謝謝。
 무한 리필 술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 (5) a. 大叔現在有點急, 能讓我先排下隊買票嗎? 謝謝!
 아저씨가 지금 조금 급한데, 먼저 줄 서서 표를 사도 될까?
 고마워!
- b. 我沒帶錢包, 借錢給我買瓶水吧, 謝謝!!
 나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 물 사게 돈 좀 빌려줘, 고마워!
- c. 阿姨麻煩您到後面排一下隊, 謝謝。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뒤에 가서 줄 서주세요, 고맙습니다.
- d. 不要把你的腳放在海報上面, 謝謝。
 포스터 위에 발 올리지 마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예(5)의 발화 환경은 예(4)의 환경과는 차이를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예(4)는 청자가 화자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서비스 업종)가 있지만 지시 이행이 청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청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어떤 행위이자 본인이 곧 받을 혜택에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예(5)의 청자는 화자의 지시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지시 내용이 청자에게 강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5a), (5b)의 청자는 화자에게 줄을 양보하고, 돈을 빌려 줄 의무가 없다. 예(5c), (5d)의 화자는 새치기하는 상대와 포스터를 밟아 더럽히는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 상대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수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예(5a), (5b)의 경우는 고마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두 예시의 청자가 지시를 이행한다면 화자에게는 명확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반하여 청자에게는 명확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곧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미리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사 표현의 의도보다는 지시 화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공적인 지시 이행을 위한 목적

으로 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사형 보조 화행은 순수한 감사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여 예의를 표하는 기능 외에도 지시 이행 이전에 미리 감사를 포함으로써 지시를 이행할 것이라 확정을 짓고, 청자에게 부담을 주고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5c), (5d)의 상황은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의 두 가지 전제조건을 벗어난다. 화자는 명확하게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며, 청자가 지시를 이행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화자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형 보조 화행을 사용한 것은 분노 대신 예의를 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을 세우고,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자가 지시를 이행할 것이라 확정하고 지시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예시로 감사형 보조 화행은 감사 화행과는 달리 기존의 감사 의미가 퇴색되고 상대의 부정적 체면(negative face)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⁷⁾을 사용하여 예의를 표하고 존중을 드러내는 예의 표지의 역할이 더 강조됨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청자가 지시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화용적 기능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 환경과 감사형 보조 화행

1) 전달 유형과 감사형 보조 화행

지시 화행의 전달 유형에 따라 감사형 보조 화행의 전략이 달라질 수

7) Brown&Levinson(1987)은 부정적 체면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욕구를 뜻한다고 하였다. 부정적 공손성은 부정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예로는 관례적인 간접 표현, 울타리 표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시 화행의 경우로 본다면, 지시의 행위가 상대의 부정적 체면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청자의 부정적 체면을 세우기 위한 부정적 공손성의 하나로 감사형 보조 화행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있다. 지시 화행의 전달 유형은 크게 음성언어(구어)와 문자언어(문어)로 나눌 수 있다. 음성언어는 보통 실시간으로 담화가 교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시를 이행할 청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문자언어로 전달된 지시 화행은 시간의 제약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청자는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자의 일방적인 발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자의 지시 이행은 반드시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 전달 매체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 감사형 보조 화행의 기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대면 현장 대화와 전화를 통한 대화, 문자언어지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문자 메시지 혹은 메일을 통해 발화된 감사형 보조 화행은 실제 언어 교체 당시의 상황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문자 메시지 혹은 메일을 제외한 대부분은 문자언어 매체의 특성상 실시간 언어 교제가 목적이 아니며 지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은 화자의 일방적인 발화로 끝이 난다. 예(6)과 같은 게시판 글, 공공시설의 주의 공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고 혹은 요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6) a. 寫了音樂日記，請幫忙贊一個吧，謝了。
음악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 b. 手機被偷了，各位親朋好友請留電話啊，號碼私信給我嘍，謝謝啦。
휴대전화를 도둑맞았어요, 여러분 번호 남겨주세요, 개인 메시지로 번호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 c. 各位同學們，推薦幾個好看的書唄！望回復！謝謝啦。
학우 여러분, 읽기 좋은 책 몇 개 추천해 주세요, 답 주세요, 고마워요.
- d. 用後請沖水，謝謝合作。
용변 후 물을 내려주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7)처럼 음성언어로 발화된 공공시설의 주의 방송 등이 이에

포함된다.

- (7) a. 請保管好自己的隨身物品, 失者自負, 謝謝。
개인 휴대 물품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b. 飛機馬上就要起飛了, 請還沒登機的旅客趕快由登機口上飛機,
謝謝。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아직 탑승하지 않은 고객은 서둘러 탑승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 為防止疫情擴散, 必須戴口罩, 謝謝。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 請出示健康碼, 謝謝。
건강 코드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자와 청자가 같은 장소에서 음성으로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자들의 이익 관계, 지시의 강제성 등에 따라 감사형 보조 화행 전략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예(6)처럼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문자 및 음성 형식으로 발화하는 동시에 강제성이 높지 않은 지시 화행과 감사형 보조 화행은 지시 내용의 강조와 이행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체면 위협 행위의 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시간으로 지시의 이행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청자(또는 독자)가 지시를 이행해 주길 기대하며 사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의 표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7)의 경우 제도적으로 반복적인 고지 상황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감사형 보조 화행을 더함으로써 기계적 명령이 불특정 청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예(7c), (7d)와 같이 강제성이 비교적 높은 지시의 경우 지시 이행의 의무에 부담을 주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제 환경과 감사형 보조 화행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 환경은 양측이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물리적인 담화 장소의 공식화 정도,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담화 장소는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정식 또는 비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은 공적인 또는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규칙 또는 예절이 존재하며, 비정식은 상대적으로 규칙과 예절에 자유롭다. 심리적인 거리는 교제 양측의 친밀한 정도와, 친밀한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호의가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를 말한다.

감사형 보조 화행의 형식을 보면 감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謝’를 기본으로, 가장 기본유형인 ‘謝謝’부터 다양한 어기 조사와 함께 사용하는 ‘謝謝啦, 謝謝啊, 謝謝了, 謝啦, 謝咯’등 외에도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3Q, 栓Q (영어 ‘Thank you의 의미)’등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정식적인 교제 환경, 특히 기관의 안내 및 알림 등에서는 감사 화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謝謝+NP’, ‘感謝+NP’의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8) 비정식 교제 환경

a. 大家幫忙轉發下, 謝咯!

여러분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b. 借我用充電寶, 謝啦。

나 보조배터리 빌려줘, 고마워.

c. 你記得從火星回來的時候給我帶點土特產噢, 栓Q!

너 화성에서 돌아올 때 특산품 좀 사다 줘, 고마워!

d. 你沒事兒吧? 沒事兒就吃溜溜梅吧, 栓Q。

너 괜찮지? 괜찮으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아 줘, 고마워!

(9) 정식 교제 환경

a. 請大家保持警惕, 注意周圍環境的變化, 確保自身安全, 感謝您的配合和關注。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시고 안전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b. 請隨手關門, 謝謝您的配合。

오가실 때 문 닫아주세요, 당신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c. 手紙入簞, 謝謝合作。

휴지는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협조 감사합니다.

d. 請自覺排隊, 謝謝合作。

알아서 줄 서주세요, 협조 감사합니다.

기본형인 ‘謝謝’는 앞선 예제를 통해 교제 공간의 정식과 비정식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8)처럼 어기 조사 등 기타 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감사형 보조 화행은 개인적인 교제 공간(대면 교제 및 인터넷 교제 모두 포함)에서 가볍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시 주로 사용한다. 부드럽고 편안한 어기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예의를 표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유행어인 ‘栓Q(또는 3Q)’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유행어만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만큼 예(8c)처럼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교제 상황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예(8d)와 같이 상대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하고자 할 때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9)와 같이 공적 공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시 및 부드러운 요청 이외에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강도 높은 지시 화행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어기 조사와 인터넷 유행어는 사용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실제 화자와 청자의 친분과 상관없이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식적인 담화 환경에서 단순한 예의 표지의 기능만 할 수도 있지만, 청자의 지시 이행 의무가 강한 화행과 결합할수록 감사형 보조 화행이 제도적 권위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심리적 배경에 따른 감사형 보조 화행의 사용을 보면,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감사 표현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시 이행의 부담이 높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기반한 지시 화행 뒤에는 일반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어기 조사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기본형인 ‘謝謝’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예의 표시, 부담 경감’ 이외에 또 다른 기능을 함을 볼 수 있다.

- (10) a. 不要罵人, 謝謝。
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 b. 別再說了好嗎? 我也不會再反擊你們了, 請你們也停止, 謝謝。
그만 말해 줄래? 나도 더 반박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그만해 줘, 고마워.
- c. 你不喜歡她是你的事, 凡事不能強求的。但希望文明一點, 謝謝。
네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건 네 일이지, 모든 일은 강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교양 있게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 (11) a. 請你把嘴巴放幹淨點, 謝謝。
말 좀 곱게 해줘, 고마워.
- b. 沒素質的請出門左轉, 謝謝。
교양 없는 사람은 나가서 좌회전해 줘, 고마워.
- c. 請立即去世, 謝謝。
당장 죽으세요, 고마워요.

예(10)과 (11)의 지시는 뒤의 ‘謝謝’를 제외하면 모두 강한 요구 또는 제지이다. 감사형 보조 화행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지시 내용을 보면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시하는 동시에 상대 행동을 질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책과 동시에 표면적인 예의를 표하는 모순적인 구조로 오히려 상대와 화자 사이를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친밀감을 드러낼 수 있는 어기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형인 ‘謝謝’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상대방과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며 기분 나쁨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예(11)과 같은 경우는 지시 화행의 표면 의미가 아닌 언어 외적인 의미가 화자의 진짜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를 비난 또는 욕하는 의미인 동시에 강한 제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시 화행이다. 이렇게 강한 부정적 감정하에 발화한 지시 화행 뒤의 감사형 보조 화행 역시 모순적인 구조를 통해 비꼼, 비난의 어기를 강조할 수 있다.

3) 지시 화행의 유형과 감사형 보조 화행

지시 화행의 발화 수반력에는 ‘명령·금지·요구·요청·건의’ 등이 있는데 이중 명령과 금지는 구조상 직접 형식을 사용하며, 의미상 화행의 표면 의미에 지시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화용적으로는 구조와 의미상 조건 때문에 청자의 체면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다고 본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 감사 화행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명령·금지·요구’ 처럼 체면 위협이 높은 지시 화행에서는 공손의 기능을 가진 감사형 보조 화행을 사용하지 않고 ‘요청’처럼 체면 위협이 낮은 지시 화행에 주로 수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일반적으로 감사형 보조 화행은 체면 위협이 낮은 부탁, 요청 등과 함께 사용하면 지시 이행에 대한 선 감사로 예의를 표하고 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앞선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며, 강한 체면 위협이 있는 지시 화행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 환경(語境)에 따라 지시 이행 유도하기, 부담 주기, 거리 두기, 비꼬기 등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지시 화행은 전통 문법에서 말하는 명령문의 형식만 아니라, 의문문과 평서문 등의 형식을 사용하여 발화되기도 한다. 특히 의문 형식 ‘能……嗎?’, ‘可以……嗎?’, ‘能不能……?’, ‘可不可以……?’ 등은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이미 지시 화행의 일부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교육에서는 유형화할 수 있는 이상의 구조를 통해 명령, 제안, 요청, 요구 등 다양한 지시 화행을 발화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 (12) a. 重點是婚紗, 我是新郎, 不接受反駁, 謝謝。
 포인트는 웨딩드레스죠, 저는 신랑이라 반박은 안 받아요.
 감사합니다.
- b. 問一下, 老壇酸菜在哪買到? 謝謝。
 좀 물어볼게요, 라오탄 썬차이는 어디서 살 수 있죠?
 감사합니다.
- c. 咖啡就可以了, 謝謝。
 커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d. 我不喝蔬菜汁, 我要吃麵, 謝謝。
 나는 채소 주스 말고 면으로 할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예(12)와 같이 지시 화행은 유형화할 수 없는 비관습적 형식으로 발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습적 지시 화행 유형은 언어의 표면적 의미에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형식 또한 유형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는 대체로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예(12)의 화행의 마지막 ‘謝謝’를 제하면 모두 지시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단순 의문 또는 서술로 이해할 수 있다.

예(12a)는 보조 화행을 제외하면 평서문 형식으로 발화되었으며, 표면 의미로 보면 ‘나는 반박을 받지 않겠다’이지만 언외 의미는 ‘반박하지 마세요’이다. 예(12b)는 해당 물건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지만 판매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다. 예(12c)와 (12d)는 평서문으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음식 대접을 준비하는 상대방에게 전하는 말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요구하고 있다. 지시 화행 뒤 감사형 보조 화행을 추가함으로써 ‘베푼 은혜에 대한 답례’의 기존 의미 및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모호한 요청의 의미가 뚜렷해진 것을 볼 때, 지시 화행과 감사형 보조 화행의 결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상호 보완하며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함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사형 보조 화행이 청자가 지시를 이행할 것임을 사전에 확정 지으며 지시 화행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지시 화행의 감사형 보조 화행이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공손성의 기능 외에도 다른 전략적 역할을 하며, 그 전략의 최종 목표는 화자의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청자가 지시 화행을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시 화행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영향을 가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고 청자가 지시 화행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시 화행의 ‘직접’, ‘간접’ 표현, 공손 표현 등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중국어 지시 화행 속의 보조 화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그중 감사형 보조 화행은 기존 감사 화행의 특징 때문에 지시 화행의 보조 화행으로서 특이점과 여러 제약이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감사형 보조 화행은 단순히 공손의 표현으로서 언급이 되었을 뿐 구체적인 조건과 특징 및 담화 전략의 기능에 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어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단순한 공손 표현 외에도 지시 화행 담화에서 다른 화용적 특징 및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형 보조 화행은 감사 화행과는 달리 화자가 곧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만 발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시가 필요한 공적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도 활용된다. 청자의 지시 이행 의무가 높거나, 명령이나 제지 등 화자가 강한 지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오히려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환경에 따른 감사형 보조 화행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로 발화되었을 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문자 및 음성 발화이면서 강제성이 높지 않은 지시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공손성의 기능이 두드러진다. 또한 지시 이행의 강제성이 올라갈수록 청자가 지시를

이행할 것임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지시 이행에 부담을 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시 화행 담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장소의 특성과 담화 참여자 양측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비공식적인 담화 장소에서는 감사형 보조 화행 구조가 비교적 자유롭다. 예를 들면, 친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기 조사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여 발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적인 담화 장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謝謝’를 많이 사용하며 격식을 갖춘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울수록 형식의 사용이 자유로우며 거리가 멀수록 정형화된 표현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화자가 청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강한 지시 의도를 전달 할 때 표면적으로 정형화되고 격식을 갖춘 감사형 보조 화행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더 벌리기도 하고 비꼼, 비난의 의미를 전달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시 화행의 발화 수반력 및 문장 구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시 이행의 부담이 낮은 요청과 주로 함께 사용하고 체면 위협을 낮추기 위해 공손성을 표하는 역할로 감사형 지시 화행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시 이행의 부담이 낮은 제안부터 부담이 높은 명령 및 제지 등 다양한 지시 화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시 이행의 부담이 강한 명령 및 제지 등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공손성의 기능보다는 지시 의도 강화, 거리 두기, 비꼬기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장 구조적으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간접 지시 화행(의문문, 평서문, 감탄문으로 발화된 지시 화행)과 감사형 보조 화행이 함께 쓰이면 표면적으로 모호한 지시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지시 화행의 감사형 보조 화행이 어떠한 특징과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와 교육적 활용 방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로, 감사형 보조 화행은 현대 중국어 이외에도 한국어, 영어 등 언어에서

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대 중국어에서 감사형 보조 화행은 지시 화행의 발화 이후에 시간적 틈을 두지 않고 바로 발화될 수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시 화행의 발화 이후 청자가 실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짧은 긍정의 대답 혹은 비언어적 표현 등의 피드백 이후 감사형 보조 화행을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감사 표현의 기본 기능인 ‘공손’의 표지로써는 다양한 언어에서도 나타나지만, 다른 제약이 더해진 환경에서는 각 언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른 중국어 감사형 보조 화행의 의미와 기능 확대 과정 연구가 이후 타 언어와의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 행위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단순히 어법과 어휘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 언어에 대한 통사적인 지식은 물론 문화적 배경과 실제 원어민들의 언어 사용 전략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과 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은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지식 위주로 진행되지만, 실제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는 기본 규칙을 벗어난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존재한다. 특히 지시 화행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활용도가 높은 화행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학습할 때 지시 화행에 관한 통사적 지식은 물론 화용적 기능 및 전략 등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에 담지 못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지시 화행의 형식과 기능, 보조 화행 전략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보조 화행은 실제 담화에서 화자가 지시 화행의 성공적인 전달과 이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또한, 담화 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어 통사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언어 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

에서 전통적인 이론 연구를 넘어 실제 담화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환경, 즉 교제 양측의 사회적 권력관계, 사회적 관계, 담화 유형에 따른 특징을 고려한 양적 분석 연구를 통해 다른 보조 화행의 전략적 활용과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기능 연구 등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영, <감사표현의 화용적 유형과 특성>, 《한국프랑스학논집》 제87집, 2014.
- 김보라, <指令言語行爲表達形式的選擇機制>, 《중국어학》 59호, 2017.
- 김정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부탁화행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62호, 2010.
- 김현철·김민영,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 2009.
- 박주현, <화행 이론에 대하여: Austin, Searle, Grice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제2호, 1983.
- 소남, 《한·중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윤비취, <중국어 공손표현 기제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5집, 2017.
- 윤상희, <중국어 명령문의 공손화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17호, 2019.
- Yan Huang(이혜운 역),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임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 화행 대조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장우양, 《한·중 요청화행의 단계별 대조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주걸,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황정혜, 《중국어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거절화행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馬煒娜, 〈漢語“請求”言語行為的輔助行為語的特徵〉, 《牡丹江大學學報》 20卷 第8期, 2011.
- 姜曉瑜, 〈真實語境請求輔助行為語使用情況之英漢比較〉, 《中國科教創新導刊》 13號, 2010.
- 李軍, 〈漢語使役行為輔助語模式和留學生習得情況分析〉,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2010.
- 塞爾(張紹杰導讀), 《表述和意義: 言語行為研究》,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3.
- 王蒼, 〈漢語中請求行為的前序話語及其策略性〉, 《重慶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 24卷 第9期, 2010.
- 肖應平, 〈談祈使句的稱呼語和輔助語〉, 《淮陰師範大學學報》 27卷, 2005.
- 約翰·蘭肖·奧斯汀(張洪芹譯), 《如何以言行事(HOW TO DO THINGS WITH WORDS)》,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12.
- 張紹杰·王曉彤, 〈“請求”言語行為的對比研究〉, 《現代外語》 第3期, 1997.
- 張新華, 〈論祈使句的輔助句〉, 《語言研究集刊》 第14輯, 2015.
- 趙微, 《指令行為與漢語祈使句研究》,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有限公司, 2010.
- Blum-Kulka, S., & House, J., & Kasper, G.,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 wood: Ablex, 1989.
- Brown, P. & Levinson, S.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earle, J.,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adjuncts to head act of thanking in Chinese speech acts of directive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expressions of gratitude function as a politeness strategy in response to past action, whereas speech acts of directives pertain to future action. Due to this temporal contrast, gratitude expressions and speech acts of directives are considered incompatible in a single utterance. However, in Chinese discourse, it is possible to observe gratitude expressions immediately following speech acts of directives. This study posits that the adjuncts to act of thanking in Chinese speech acts of directives serve, not only as a politeness strategy, as previously discussed, but also fulfill a strategic function aimed at conveying the speaker's emotional stance whil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ive's execution. By analyzing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adjuncts to act of thanking speech acts across different linguistic contexts,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speech acts of directives strategies and provide insights for Chinese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중국어 지시 화행(Chinese speech acts of directives), 감사 화행(Speech acts of thanking), 보조 화행(Adjuncts to head acts), 담화 전략(Discourse Strategies), 언어 환경(Linguistic contexts)

